키조개·세발낙지 등 브랜드화 차질

해수부 '수산물 지리적표시제' 준비 소홀

품목선정 기준·검증방법 전면 재검토키로

올해부터 시행하려던 '수산물 지리적표시제'가 해양수산부의 준비 소홀로 차질을 빚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수산물에도 '지리적 표시제'를 도입키 위해 대상 품목 선정 고시에 착수했다.

이에따라 전남도 역시 지난해 10월 장흥 키조개와 벌교 꼬막, 무안 갯벌 세발낙지, 완도 김·다시마·미역·전복·넙치 등을 대상품목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특성상 품목 선정이 모호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준과 검증방법 등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분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 해양수산개발원과 한국 지적재산권관리원 등에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동안 '수산물 지리적표시제'에 적합한 품목과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수산물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추진하던 전남지역 지자체들도 지리적 표시제 등록에 관련된 마케팅 등 준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해수부 용역이 끝나는 10월에야 대상 품목을 고시할 것으로 예상돼 올 하반기로 관련 마케팅 작업 등을 연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장흥군은 키조개에 이어 바다냉면으로 불리는 해조류 '꼬시래기'와 '매생이'도 수산물 지리적 표시제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또 벌교군의 꼬막과 무안군 갯벌 세발 낙지 등도 내년 상반기에야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돼 지역 수산물을 브랜드화 하려던 지자체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수산물 지리적표시제는 특정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지역이름을 표시해 등록한 뒤 이를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하고 이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다.

한편 전남지역에서는 보성녹차와 해남 겨울배추·고흥 유자·진도 홍주·무안 양파·장흥 표고버섯 등 농·임산물 6개 품목이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마쳤다. /송기동기자 song@

함평 전통 왕골돗자리 짜기 한창 함평군 월야면 용월리에서 정일범(60)씨 가족이 재래식 돗틀을 이용해 전통 왕골 돗자리를 짜고 있다. 정씨 일가는 9대째 왕골 돗자리를 생산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피서·갯벌체험 함평만으로 오세요

郡, 생태프로그램 운영

"천혜의 갯벌 보존 지역인 함평만에서 피서와 함께 갯벌체험을 통해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함평군이 6일부터 오는 8월 15일까지 41일 동안 유치원과 초·중·고생 및 교사,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선정한 갯벌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갯벌 수족관에서 35종의 어패류를 관찰할 수 있고 전문 강사로부터 갯벌의 생성 원리와 유형, 다양한 갯벌생물의 생태 등을 직접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진다.

또 신발을 벗지 않고 650m 침목 징검다리 탐방로를 거닐면서 게와 고둥, 조개 등 갯벌생물을 채집할 수 있고 행사기간에 '참숯 뱀장어 잡기'도 4차례 열린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참가자 전원에게 갯벌생물 사진과 설명이 새겨진 교육용 부채를 무료로 제공한다.

참가 신청은 함평군 홈페이지 (www.hampyeong.jeonnam.kr)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전화(061-320-3331)로 문의하거나 팩스(061-320-3582)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이 프로그램에는 전국 각지에서 38개 단체 2천920명, 개인 4천910명 등 모두 7천830명이 참가했다./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보성 율포 '해수·녹차타운' 개장

보성 율포 '해수·녹차 휴양타운'이 시설 개·보수를 마치고 6일 개장한다. 〈사진〉

지하암반 120m에서 해수를 끌어올려 사용하는 '해수·녹차 휴양타운'은 터널 튜브형 슬라이드를 비롯해 해적선, 유수풀, 썬텐장과 30억원을 들여 조성한 파도풀장 등 다양한 물놀이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해수·녹차탕'은 미네랄이 풍부해 혈액순환 및 피부 활성화, 각종 피부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율포 해수욕장은 오는 23일 개장한다.

/보성=안구일기자 giahn@

땅끝 국토 순례객 몰린다

대학생 등 참여자 급증

"땅끝에서 우리땅 소중함 느껴요"

한반도의 시작인 해남군 송지면 땅끝에 국토 순례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LG 텔레콤은 7·8일 이틀간 대학생 50개 팀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으로 국토 바로 알기 캠페인-17마일 해남 땅끝 레이스'를 실시한다. 군내버스와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만을 이용해 서울시청에서부터 해남군 땅끝마을까지 레이스를 펼치며 우승팀에게는 유럽 레이스 참가 혜택이 주어진다.

또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120명이 참가하는 '땅끝 마을에서 임진각까지' 전국대학생 국토대장정이 시작된다. 14일에는 땅끝에서 강원도 고성 통일 전망대까지 622km를 7일간 달리는 '2007 대한민국 종단 622 km 울트라 마라톤대회'도 개최된다.

이밖에 YGK(Young Great Korea)는 오는 16일부터 해남에서 청주까지 1천4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007 청년희망 국토 대장정'을 실시한다. 이들은 국토순례와 함께 각종 봉사활동, 환경운동 등을 전개한다.

/해남=박정옥기자 jopark@

부동산 특별법 악용 임야 사기매각 적발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악용해 임야를 가로채려던 마을 주민이 경찰에 고발됐다.

손모(함평군 신광면)씨는 지난 3월 함평군 신광면 송사리 665번지 군유산 소재 이모(1981년 사망)씨 명의로 된 임야 1천521㎡를 지난 1980년 강모(51·해보면)씨에게 매도한 것처럼 허위 보증서를 꾸며 군에 접수했다.

그러나 최근 원 소유주의 아들(53·무안읍)이 함평군에 소유권 이전 서류를 제출하면서 이 사실이 발각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더욱이 손씨는 오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여부를 확인하는 보증인을 맡고 있어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화순 불미나리 가공제품 日 수출

화순 불미나리 가공제품의 일본 수출이 크게 늘고있다.

지난해 불미나리 가공식품 5만달러어치를 미국과 일본에 수출했던 화순 한우물은 올해는 엠앤사와 110만달러의 수출 계약을 맺고 5일 선적을 마쳤다.

화순 한우물은 지난 20여년동안 인근의 105농가와 함께 30여만평에 이르는 친환경 유기재배 단지를 조성하여 불미나리, 인진쑥등의 특용작물을 재배하여 주변환경개선과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 새얼굴

"주민 맞춤형 치안행정 펼터"

안 병 호 보성경찰서장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치안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신임 안병호(52) 보성경찰서장은 "자율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소신있게 업무를 처리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대우받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보성 출신인 안 서장은 전남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간부 후보(35기)로 경찰에 투신해 전남경찰청 정보 2계장, 생활안전계장 등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부인 황영춘(46)씨와 2녀가 있다. 취미는 등산. /보성=안구일기자 giahn@

"인권 존중 치안 서비스 최선"

최 정 환 장흥경찰서장

"주민이 실감하는 치안서비스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부임한 최정환(53) 장흥경찰서장은 "인권 존중과 경찰 윤리의식 함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출신인 최 서장은 1980년 간부후보(28기)로 경찰에 입문, 서울 수서경찰서 정보과장과 서울청 정보 5계장 등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부인 김숙희(51)씨와 1남2녀가 있다. 취미는 등산.

/장흥=김용기기자 kykim@